

자생형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시동'

'액티브 로컬 캠프-군산'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

군산시가 주최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민간 컨소시엄인 액티브 로컬이 주관하는 '액티브 로컬 캠프-군산'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월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다.

'액티브 로컬 캠프-군산'은 군산 영화시장에서 나만의 가게를 일구고 싶은 창업가들을 발굴해 지역 기반의 스몰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빈 점포 소유

주와 창업자,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장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이지만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의 전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자생형 도시재생 모델인 리노베이션 스퀘어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며 일본의 50여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액티브 로컬 캠프-군산'

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전문가가 '액티브 마스터'로 참여해 2박3일간 멘투멘 방식으로 밀착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예비 창업자의 아이템 기획과 실행을 직접 도울 예정이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액티브 마스터는 광주 1913 송정역시장의 윤희석 마스터, 청량리 상생지의 나영규 마스터, 제주 비전빌리지의 최정훈 마스터, 해방촌 론드리프로젝트의 이현덕 마스터, 시흥 월곶 바우스앤바우스의 임효목 마스터, 군산 나눈섬의 조권능 마스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번 캠프를 통해 최대 10

개의 창업팀을 선발하고 해당 사업팀을 대상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 및 사업계획 고도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액티브 로컬 캠프-군산은 원도심 상권과 재래시장의 쇠퇴 문제로 고민하는 전국의 중소도시에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역브랜드를 수행하는 각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군산의 경제적 지속성을 그려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1호 근대시민전시장인 '군산화교역사관-용문각'이 지난 20일 영화동에서 개관했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기반조성·군산화교 역사 재조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시민전시장 '화교역사관-용문각' 개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군산의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1호 근대시민전시장인 '군산화교역사관-용문각'이 지난 20일 영화동에서 개관했다고 밝혔다.

'근대시민전시장'은 올해 3월부터 군산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을 공모하여,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전시기획과 유물을 전시하고, 건물주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시장이다.

박물관의 근대시민전시장 제1호인 '군산화교역사관'은 1970년대 유명 중화요리집인 '용문각'을 운영하고

군산화교학교교장을 역임했던 여건방씨가 화교역사자료와 중화요리집의 자료,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아 개관할 수 있었다.

이번 화교역사관의 개관을 통해 대한제국시기부터 군산의 이웃으로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화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추억의 중화요리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1부 '화교이주의 역사', 2부 '군산의 화교소학교', 3부 '군산의 중화요리', 4부 '군산과 짬뽕', 5부 '화교의 문화'라는 주제와 1970년대 중

화요리집으로 운영되었던 용문각의 당시 모습을 통해 추억을 회고할 수 있는 생활사(史)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근대시민전시장 군산화교역사관은 박물관과 이성당 사이에 볼거리 문화콘텐츠를 조성하여 군산의 관광활성화와 이웃인 군산 화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1~2개소의 전시장을 공모를 통해 조성하여 군산 시간여행마을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생활여건개선 위한 주민숙원사업 460건 마무리 추진

익산시는 통합안전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총 460건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각 지역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본예산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90건 3393천만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했다. 또한 제1·2회 추경예산에서 270건 4596천만원을 추가 편성 확보하여 현재 총390건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70건의 사업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절기 공사 중지 기간 이전인 12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 시 일부 사유 토지 등에 대한 조기 사용 승락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 희망2018 나눔캠페인 73일간의 나눔 대장정 돌입

군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18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을 20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총 73일간의 나눔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복동 소재 군산성광교회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하여 나눔의 릴레이를 이어갔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게 연탄 지원 등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환경개선으로 지역사랑 실천 앞장 하나님의교회, 익산국가산업단지 정화 나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가교역할을 수행해 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지역 환경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전북지역 하나님의교회 성도 350여명이 최근 영동동 익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 대해 정화활동에 나서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다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성도들은 늦가을 쌀쌀한 날씨 속에 본격적인 활동에 일제히 나섰다.

하나님의교회는 이날 중순을 전후로 전 세계 지구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지구 둘레 4만 km의 거리를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거리로 변화시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금번 Mather Street 전 세계 지구환경정화활동을 통해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2015년 UN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지구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이에 175개국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는 변화가 캠퍼스 주변, 직장밀집지역 등 정화활동이 필요한 곳에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당일 정화운동은 산업단지 대로를 시작으로 인근 도로변과 공장지역 약 3KM구간에 걸쳐 환경운동에 실시해 쓰레기와 낙엽 1톤 트럭 10대 분량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도들은 개인마다 준비한 빗자루와 집게를 소지하고 곳곳을 정비하였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 비응항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추진

군산시는 침체된 비응항 상권의 활성화 유도 및 새만금권 해양레저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2016년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전담연행 등 관계기관 동의를 얻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펼쳐왔으며, 최근 군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항만부지 조건부 사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비응도 모래사장과 비응공원을 연계하는 산

책로(1.8km) 개설, 해안의 절경을 활용한 전망 쉼터 1개소 및 포토존 3개소 등을 조성하고, 비응도에 세워질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맞추어 샤워장 및 화장실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휴식과 해양레저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비응항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해양레저의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행정제도 개선 행안부 장관상' 수상

군산시는 20일 대구에서 개최된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도 국민 생활 밀접 행정제도 개선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196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35건을 선정했으며, 군산시는 부모교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인 '어린이 행복 부모학교·부모교육 통합지원 시스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부모교육 통합지원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1회 방문으로 모든 부모교육을 안내 받고 맞춤형·연계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기관별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조정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